한국청소년연구 제21호 1995 여름

가출청소년의 삶과 문화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1)]

김 영 지*

Ⅰ. 들어가는말
Ⅱ. 가출청소년문제의 문화론적 재해석
Ⅲ. 나오는말

Ⅰ. 들어가는 말

1. 연구목적

청소년 가출현상은 어느 청소년에게나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으며, 실제로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청소년 가출에 대한 기존 연구의 흐름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는데,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 가출을 '비행'이나 '문제행동'과 동일시하여 가출이라는 문제행동을 낳게한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고 처방할 것인지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원인-결과론적 패러다임 중심으로 지나치게 거시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고, 실증주의적 연구방식을 이용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인간활동 속에 숨겨진 상징과 의미를 포착하거나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행동이나 태도의 깊은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즉, 사회적 세계나 삶의 의미는 조사자의 인위적인 틀에 의해서 재단되거나 모두 인관관계의 틀 속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인간의 행위는 사회적 의미체계, 태도, 신념, 동기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고정적인 관점을 갖기 쉽다. 특히 가출 자체를 비행으로 전제하고 가출청소년이 집을 떠나 생활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가지 경험들을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일정한 규범적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함으로

1) 이 글은 1994년 12월에 발표된 석사학위 논문 중 〈해석과 논의〉부분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대상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실린 원 논문의 〈진수의 생애〉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

써 그들을 문제청소년으로 낙인찍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보이지 않는 상황의 내적 역동성은 무엇인지를 이끌어내고 그들의 세계를 연구대상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연구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실제로 가출 청소년들은 어렵고 험난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위기와 긴장상태를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게 된다. 즉 가출청소년들만의 특수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출청소년의 문화'를 그 나름의 고유한 방식과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새롭게 이해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2)]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인간이나 현상의 고유한 의미세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탐구하는 연구방법으로서,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생애사(生涯史)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 과정으로 연구자는 진수라는 한 가출청소년에 대해 1년 정도 지속적인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하여 그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고 그가 어떤 경험을 했으며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지 그 심층기제를 발견하고자 하였다.[3)]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이 가출을 하게 된 배경요인과 가출이후의 생활과 문화를 살펴보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주체적인 자아로 인식하고, '가출'현상 또한 주체의 의미있는 문화적 행위양식으로 보고, 가출청소년이라는 한 주체와 가출현상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요소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청소년 가출문제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고자 한다.

II. 가출청소년문제의 문화론적 재해석

1. 가출의 배경요인

1) 가정생활

진수가 가출을 하게 된 1차적인 배경에는 애정이 흐르는 보금자리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빠져나오고 싶은, 더이상 참을 수 없는 곳인 '가정'이라는 공간이 있다.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르는 탄생에 대한 회의와 왜곡된 신경증적인 증세를 가지고 심한 폭음,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 그리고 친엄마에게 버려졌다는 피해의식과 새엄마의 구박은 항상 고민과 스트레스를 주는 갈등적인 환경이었다. 특히 진수에게 가장 좌절감을 느끼게 한 것은 부모님의 싸움이었다. 진수의 기억에 부모님의 다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 날이 거의 없을

2) 조용환(1993)의 '청소년 문화'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면 '가출청소년 문화'는 가출청소년들이 그들이 처한 삶의 조건 속에서 형성하여 공유하는 독특한 생활방식과 그들의 삶에 부여하는 독특한 의미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3) 이 연구의 대상은 '박진수'라는 18세 남자 아이이다.(이 논문에 등장하는 인물, 기관, 장소는 대부분 가명이다. 특히 인물의 경우 신상보호를 위해 전적으로 가명을 사용하였다.) 진수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진수,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네 명이다. 지금의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며 동생도 이복동생이다. 아버지는 주로 버스나 트럭 운전을 하는데 직업이 불안정한 편이다. 진수는 1992년11월1일, 중학교 3학년인 16세 때 가출을 해서 1년 4개월 동안의 가출생활을 경험했다. 진수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연구자가 1993년5월11일부터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YMCA청소년 쉼터를 방문하고 있던 중 1993년12월21일 처음 진수가 쉼터를 찾아왔을 때이다. 몇 달 동안 진수와 래포를 형성하고 연구대상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간을 거쳐 진수가 직업훈련원에 들어가던 1994년3월2일 연구자는 진수에게 정식으로 생애사 연구의 주인공이 되어줄 것을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후에는 1994년11월까지 1주일에 1~2회 정기적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실행하였다.

정도로 부모님은 자주 싸웠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심하게 구타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도망다니느라 자주 집을 나갔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진수는 가슴 속에서 뜨거운 열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자제해 그 순간을 넘어가곤 했다. 어려서부터 진수는 도벽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정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를 바깥에서 충족시키는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다.

이런 가정에서 진수는 항상 억압되어 있다는 답답함에 사로잡혀 있었고 무언가에 구속되어 있다는 느낌 때문에 집에서는 즐거웠던 기억이 거의 없다. 가정에서 무관심과 거부를 당해오고 어머니에 대한 어버지의 폭력을 보면서, 또 자신도 심하게 맞으며 자라온 진수는 가정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를 키우게 되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폭력을 지켜보고 또 학대를 당하면서 지내온 것도 진수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된 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들에도 나타나듯이 진수는 술에 찌들어 살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의 갈등 표현방식을 보면서 문제 회피나 공격적, 자기 패배적 사회활동을 학습하게 되고 자아개념 결여, 충동적 성질, 인내심 결핍, 신뢰심 부족 등의 행동특징을 보인다(박성수, 1991; 연진영, 1992).

물론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가 단순히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형성되고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분리되고 원자화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행위나 태도를 설명하고,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물질적 조건들을 함께 고려해야 보다 과학적이고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개인의 잘못된 인성'을 일차적으로 유아기나 내적 본능으로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적 사회관계에 직면한 개인의 무능력에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피터 레오나드,1990)은 청소년 문제를 지나치게 개인 중심적인 원인으로 귀인시키는 심리학적 연구의 고정화된 관념에 중요한 문제제기를 해준다. 즉 아동의 가정 내에서의 경험은 직접적으로는 부모의 여러가지 행동특성 및 훈육방식 등에 영향을 받지만 그러한 부모의 특성 또한 더 큰 사회적 영향에서 기인된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낮고 특히 아버지가 실직인 경우 아동학대가 심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실업이 좌절감을 낳게 하고 그 좌절감이 아버지가 폭력을 통해 권위를 주장하도록 하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연진영, 1992).

진수의 아버지는 안정된 직장이 제대로 없었고 항상 술에 찌들어 살면서 집에서는 주먹을 휘두르는 등 그의 인생에서는 실패자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진수의 아버지는 트럭이나 버스 운전을 주로 했는데 단순, 반복적인 노동에다가 한 곳에서 오래 일을 하지 못하고 자주 실직을 해서 항상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경험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세브(Sève)의 주장에 따르면 이럴 경우 그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보다 삶이 그에게 주로 작용을 가하는 경험을 하게된다. 그럼으로써 실제로 그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된 기

회는 가족관계 내에서인데 즉, 부인과 자식들에게 작은 군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본주의적 착취 현상이 그대로 자신의 인성 깊은 저변에 각인되어 자신은 가정 내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림하는 군주로 활약하는 것이다(피터 레오나드, 1990).

그러나 아버지의 왜곡된 인성의 저변에 더 큰 사회적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수가 아버지와 가정상황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해하고, 스스로 갈등 상태를 해결해나간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진수는 아버지의 신경증적인 행동 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간파할 수 없는 어린 나이였고 그저 아버지의 폭력과 학대, 엄마와의 싸움 그 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였고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게 한 주된 요인이었던 것이다. 거기에 새엄마에게 받은 거부의 느낌과 애정 부족까지 겹치어 진수에게 가정이라는 공간은 안정감을 느끼고 자아정체감을 찾게 해주는 곳이라기 보다는 좌절하고 고민하고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두터운 벽이었다. 잘못된 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신도 잘못된 것만 배워서 이제 올바르게 돌이키기 힘들다는 생각들이 항상 진수를 낙담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곤 했다. 진수에게 가정생활은 '자유를 감금당한 것 곧, 구속'이었다.

2) 학교생활

가정생활과 달리 진수에게 학교는 집에서 풀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친구들과의 장난으로 해소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곳이었다. 문제가 있었다면 장난을 잘치는 '까불이'여서 가끔 야단 맞는 것과 종종 싸움을 해서 부모님이 불려가는 것이었다. 진수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학교에서 아버지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또래 아이들에게 대신 표출한 것이다. 진수는 주로 욱하는 성질을 못이겨서 싸움을 벌이곤 했는데, 그 '욱하는 성질' 또한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라면서 욕구를 원만하게 분출, 해결하지 못한 데서 형성되기 쉬운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욱하는 성질'은 진수가 자신을 둘러싼 구속적 이미지의 가정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폭력적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기제로, 진수는 생활하면서 참을 수 없는 갈등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욕구분출 형태들을 '욱하는 성질' 때문이라며 정당화시키면서도 안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어쩔 수 없는 나쁜 성질이라며 스스로를 탓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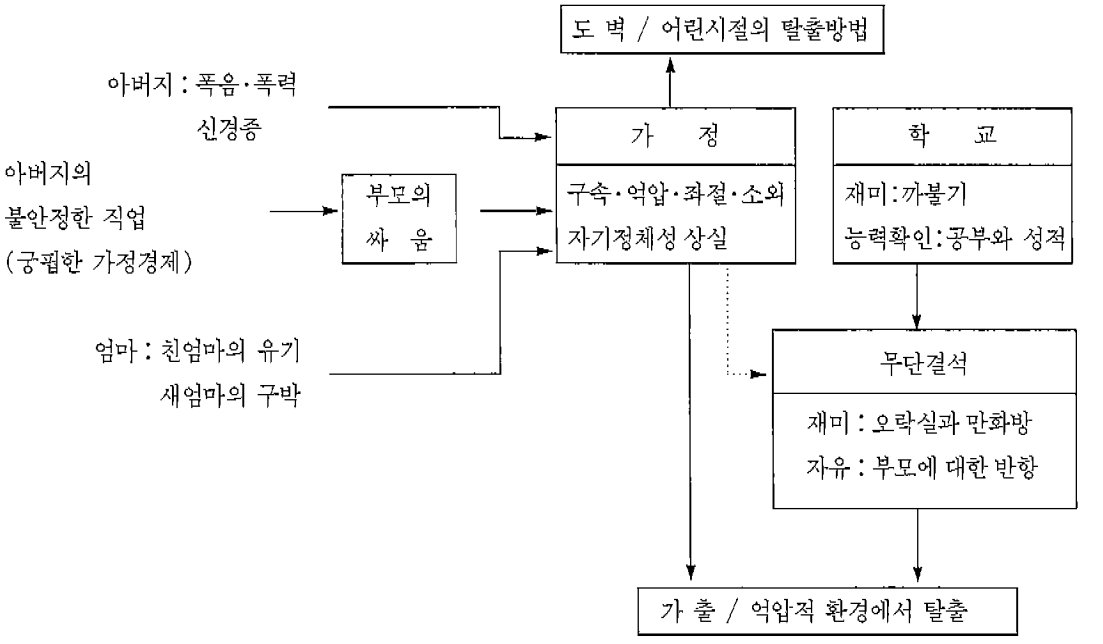
가끔 싸움을 한 것을 빼고는 진수에게 학교는 가정에서 느끼는 억압과 좌절감 대신 즐거움과 자신감을 맛볼 수 있는 만족스러운 곳이다. 진수에게 가정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안정감이나 정체성을 느끼기 힘든 곳이지만 학교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긍정적인 확인이 가능한 곳이다. 특히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에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부와 성적 면에서 진수는 좌절감이나 압박감 보다는 우월감을 느낄 정도로 우수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더욱 가정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존감과 자아정체성을 확인하는 곳으로서 학교에 재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집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부분

으로서 좌절의 의미가 컸지만 학교는 진수가 노력하면 댓가가 나오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는 곳이었고 그런 과정들은 진수가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들이었다. 적어도 진수에게는 학교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현실화시켜 주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수의 학교에 대한 유의미성도 가정의 억압적 요소를 극복하게 하지는 못했다. 진수는 집에 대한 반항으로 자신의 존재 확인이라는 큰 의미를 주던 학교에 '무단결석'을 시작했고 그 속에서 부모님의 말을 거역했다는 '자유'를 느끼게 된다. 담임선생님의 배려로 부족한 출석일수를 채워서 중학교 2학년을 간신히 마치고 3학년이 된 진수는 다시 고등학교 진학의 꿈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다. 성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진로 문제로 부모님과 부딪치게 되고 결국 '가출'을 통해 '거지같은 집구석'을 떠나면서 동시에 학교라는 장도 떠나게 된다.

진수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통해 살펴본, 가출의 배경요인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가출의 배경요인 모형도



3) 가출의 배경요인

진수가 가출하게 된 배경요인인 여러가지 영향들을 살펴보면 특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출의 원인 연구에서 가정적 요인과 함께 그에 못지 않게 큰 요인으로 지적되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과 또래집단(친구)의 유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연구과정에서 진수에게 학교와 친구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결론은 진수의 경우에는 이 요인들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느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가출의 원인으로 입시위주의 학교교육(45.8%), 대화와 애정없는 가정환경(36.1%), 향락·퇴폐적인 사회 환경(18.1%)을 들고 있으며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나 걱정거리에 68.5%의 학생이 성적, 진로문제라고 응답하고 있다(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 1991).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공부에 대한 압력이 심리적인 부담을 주게 되어 자기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나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리게 되거나(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공부압력이 너무 크게 되면 그들에게 집은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고, 학교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기 때문에 가출이나 무단결석이 많아짐을 밝히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a). 일반적인 청소년들에게, 특히 낮은 성적으로 학교에서 좌절과 긴장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학교가 지위비행이나 가출, 무단결석 등의 행동을 하게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수의 경우는 공부와 성적이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되는 학교가 압박을 주는 곳이라기보다 오히려 가정에서의 답답함을 풀 수 있는 재미있는 곳인데다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의미있는 장이었다. 그것은 바로 진수가 어느정도 성적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진수를 유인하는 힘보다 억압을 느끼게 하는 가정의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에 진수는 결국 무단 결석을 통해 자신이 의미를 느끼던 학교에서까지 탈출하게 된다. 진수의 무단 결석은 학교에 대한 거부의 의미 보다는 가정에 대한 반항의 의미가 강했고, 그 반항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해방감은 학교에서의 자기 확인이라는 만족감도 버릴 수 있을만큼 컸던 것을 보면 가정에서 받는 진수의 스트레스는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잠시 청소년 가출에 관련한 학교교육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수가 몇 달 동안 무단 결석을 하는 동안 부모님께 들키기 전까지 학교에서는 진수의 집에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그 문제에 대해 선생님과 상담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요즘은 학교에서 문제학생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쉽게 징계를 내려 더 큰 문제학생을 낳고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아예 무관심한 것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다행히 진수의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몇달간의 무단 결석을 병결로 처리하여 무사히 학교를 마칠 수 있었지만 진수가 그렇게 오랜 동안 무단 결석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것은 오늘날 학교교육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입시위주 교육, 과밀학급, 과대잡무 등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가 멀어지고 참된 인격적 만남과 대화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지나친 요구가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진수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는 선생님이 있었다면, 그리고 진수가 그 속에서도 삐뚤어지기 보다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공부에도 흥미를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진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진로에 대한 꿈과 희망을 불어 넣어주며 가정에서의 압박감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나 친구가 있었다면 진수의 미래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교는 그러한 역할을 포기했고 결국 진수는 가정에서의 좌절감을 '가출'이라는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 극복하게 된다. 이로부터 거의 2년 후 가출청소년이 된 이후에야 진수는 자신을 이해하고 용기를 주며 진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미있는 타자, '청소년 쉼터'를 만나게 된다. 학교가 더 빨리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한 가출청소년의 삶은 전혀 달라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학교가 진수의 가출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잠재적 가출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결국 소극적 의미에서 가출을 가능하게 한 영향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교교육의 문제와 함께 또래집단의 유인력도 청소년가출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청소년가출은 단일 요인에 의해서 보다는 결손가정이나 가정불화와 같은 '가정문제'에서 배태되어, '학교성적'이 떨어질 경우 강화되고, 또래 친구로부터 가출유혹을 받아 일어나는 '복합적인 사건'으로 보인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2). 일반적으로 가정과 교육문제가 청소년을 가출로 '내미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또래집단의 압력과 유흥업소 등의 유해한 사회환경은 가출하도록 '끌어내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의 가출의 경향에서 또래집단 내에서 형성된 하위문화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가출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의 사례를 통한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은 어떤 사회에서 보다 또래집단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안에 있을 때에 비교적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청소년의 가출의 많은 경우가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2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가정과 학교사회에서 밀려나면서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정체감 형성의 장을 상실하게 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자신들만의 생존방법으로 집단행동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 1994). 이 외에도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서 친구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동의하고 있다(전병재, 1991;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b 등).

그러나 진수의 경우는 또래집단, 즉 친구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통 청소년들이 가출을 실행에 옮길 때 그동안 생각만 하고 엄두를 못내고 있던 것을 친구의 제안으로 용기를 얻어 함께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진수는 스스로의 문제가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의 부추김도 필요없이 오랜 기간 참아왔던 억압의 장을 과감히 벗어나고 말았다. 가출 이후 생활에 대해 친구로부터 유혹을 받아 호기심이나 기대가 있었다기보다 진수는 우선 집을 탈출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던 것이다. 오히려 진수는 무단 결석 동안 몇번 같이 어울렸던 소위 문제집단 아이들과 자신을 차별화시키며 그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며 그 집단에 어울리기를 거부하기도 하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준거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다. 이후 가출생활에서도 진수는 주로 혼자 돌아다니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성격적인 요인이나 생활방식의 특성도 어느정도는 작용을 했을 것으로, 진수는 다른 가출청소년들에 비해 독립적인 성격이 강했고 혼자 생활하는 방식에 익숙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진수의 경우는 학교에서 '내미는 힘'이

나 또래집단에서 '끌어내는 힘'이 없이도 가출을 단행할 만큼 '가정'요인이 심각하고 절대적이었다. 학교나 또래집단의 문제가 크지 않았던 만큼 가정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할 만한 학교나 다른 '의미있는 타자'가 있었다면 가출로 이어진 진수의 삶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2. 가출청소년의 생활과 문화

1) 가출 이후

가출청소년이 된 진수는 홀로 세상에 던져져서 가장 먼저 의식주 문제에 부딪치고 그 해결을 위해 직업의 세계에 뛰어든다. 생계유지를 위해 중국집 배달원, 룸쌀롱 서빙, 노가다 등 끊임없이 직업을 갖고 일을 했지만 때로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잠도 잤고 며칠 동안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진수는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맺으며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익혀간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진수에게 가출생활은 "재미있었다, 멋있었다, 후회없다, 잘한 일이다." 라는 말들로 표현된다. 돌아봤을 때 진수에게 집은 힘든 것만 기억나고 집을 나온 이후는 재미있었던 것만 생각나며, 집을 나오자 진수는 '홀가분함'을 느꼈고 '날아갈 듯' 했으며 '그런 이상한 집에서 살다가 집을 나오니 그렇게 편할 수 없었다.' 진수는 자신이 집에 계속 있었으면 더 삐뚤어지거나 잘못됐을 거라고 말하듯이 가출생활은 오히려 진수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자신 만의 방식으로 선택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행위로 볼 수 있다. 가출은 진수에게 구속과 억압의 틀에서 벗어났다는 '자유로움'과 '해방'의 의미를 가진다. 진수는 가출을 통해 세상에 독자적으로 우뚝 섰다는 느낌과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임을 느끼게 됨으로써 새로운 자신 만의 삶을 꿈꾸게 된다. 실제로 스스로 돈을 벌어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책임과 자유의 상태를 맛보며 홀로서기를 실감한 것이다.

그러나 가출 이후 진수가 만난 세상이 진수에게 해방의 의미로만 다가선 것은 아니다. 진수가 가출 이후 만난 세상에는 또 다른 형태의 좌절과 한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면서 만난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 직업 경험 속에서 진수는 '결코 아름답지 만은 않은' 세상의 논리를 깨닫는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면서 인간적인 만남 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 맺어지는 관계들에 익숙해 지고 진수의 돈을 보고 몰려드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리고 룸쌀롱 기도형들에게서 주먹과 든든한 배경이 그 사람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보며 진수는 사람의 진실성과 성실성이 올바로 보답받지 못하는 사회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또한 자신을 부려먹으려고만 하는 몇몇 주인아저씨들을 통해 자신이 하나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것을 느끼며 가정에서의 탈출이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완전한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진수의 삶을 질곡으로 밀어 놓는 요소는 가정 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바깥에도 곳곳에 산재해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애초에 진수가 집을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꼭 성공하겠다.'는 생각은 단순, 반복되는 가출생활 동안 점점 희미해지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상황 속에서 쉽게 잡기 어려운 희망사항이 되어갔다.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는 다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진수는 현재의 자기모습에 대한 초라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곤 했다.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살면 더 힘들어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시간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민없

이 쉽게 사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2) 가출자 의식과 통과의례

가출생활에서 느껴지는 허전함과 불안함을 달래준 것은 가출생활에서 새롭게 경험한 '술, 담배, 여자'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터득한 '스트레스 해소법'과 '즐기면서 사는 법'이었다. 진수가 처음 담배를 피운 것은 가출해서 떠돌아 다니다가 "이제 나도 가출한 아이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막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이고 그 때 처음 스스로 담배 한 갑을 사서 피워봤다. 집을 나와 방황만 하고 있는 상태가 불안하고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제 자신은 정상적으로 집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는 다른, 가출청소년으로서 독자적인 정체감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수의 경우는 우연히 흡연을 시작함으로써 비행청소년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흡연을 하는 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라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인식을 인지하고 자신이 스스로 그 사실을 이용하여 흡연행위를 통해 그 대열에 끼어드는 것을 능동적으로 선택했다. 진수에게 흡연은 '나쁜 행동'의 의미보다는 지금까지 집에서 생활하면서 맺었던 모든 주위 환경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가출청소년으로서 새로운 자아정체감과 자신의 위치를 확보해 나가는 시작이었다. 술을 마시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술에 취하면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불만족,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잊을 수 있어서 진수의 술마시는 방식은 빨리 취하기 위해 늘 이것저것 섞어 마시는 '짬뽕주'에다 맛도 모르고 벌컥벌컥 들이 마시는 식이었다. 그리고 나서 술김에 옆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얻어 터지기도 하며 한바탕 싸움을 하고 나면 오히려 가슴 속이 후련하고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는 것 같기도 했다. 여러가지 생각하고 고민해 봤자 해결되기는 커녕 머리만 아팠고 '술마시며 놀다가 취해서 엎어져 자버리면' 그렇게 하루는 넘어갔다. 이렇게 술을 마시는 행위는 그 행동의 좋고 나쁨을 따지기 전에 진수가 가출 생활동안 힘든 과정을 지탱하게 해 준 버팀목으로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바로 현재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잊기 위해서였다.

음주, 흡연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에게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지만 진수가 새롭게 해 본 다른 경험은 이성과의 성관계였다. 가출 전까지 '순진'했던 진수는 그런 세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능곡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다. 사귀던 여자친구들은 몇 명 있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열었던 친구는 거의 없었고 그저 심심함과 지루함을 달래주는 정도의 의미로 관계를 맺을 뿐이다. 그렇게 사람을 사귀고 난 후에도 마음의 허전함은 여전했지만 진수는 "심심한 것 보다는 나았다"고 말한다.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서 그렇게라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그러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것은 가슴 속 깊이 남아있는 욕구 불만을 조금이나마 충족시켜 주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했으며 어른이 된 듯한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 전까지의 생활의 틀과 규범을 깨는 그러한 행동들은 진수에게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해주는 통로이기도 했고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은 가출생활 전반을 "재미있었다"고 평가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진수는 이러한 쾌락적인 행위를 스스로 생활에 적응하는 기제로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로 이용한 것이다. 특히 진수

는 룸쌀롱 형들의 폭력문화에 접하면서도 그 집단 속에 동화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는 것을 끊임없이 거부하며 자신 만의 세계를 지켜나감으로써 나름대로 자기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자신의 소망을 지켜나가려는 의지를 잃지 않고 있었다.

3) 오토바이, 천장지구 그리고 신해철

진수에게 즐거움을 주는 또 다른 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중문화이다. 영화〈천장지구〉와 신해철로 대표되는 대중문화는 진수가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떠나 가상의 세계 속에 자신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장이었다. 진수는 〈천장지구〉를 18번이나 봐서 모든 영화 장면과 대사를 외울 수 있어, 톰만 나면 혼자 주인공이 되어 영화 장면을 재현하곤 한다. 진수는 의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화가 되어 상상 속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질주하기도 한다. 영화 속에서처럼 순수한 사랑과 의리를 가지는 것이 진수의 꿈이기도 하다. 진수는 영화 속의 일들이 너무 절실하게 다가와 주인공 아화가 입었던 청바지, 청자켓, 찢어진 청조끼 등을 자주 입는 등 자신과 영화 속의 인물을 동일화시키기도 하며 현실 상황에 영화 속의 사건들을 적용해서 생각하기도 한다. 진수가 아화가 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화가 몰고 다니는 오토바이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오토바이에 형상화되어 진수의 모든 사고를 오토바이의 이미지가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어 대화 한 마디마디에 오토바이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오토바이는 진수의 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수는 오토바이만 있으면 떠나고 싶을 때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어디에나 갈 수 있다는 것이 좋고, 멋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상상을 하면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나 가슴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은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아화 역의 유덕화(홍콩 영화배우)와 함께 진수의 또 다른 우상은 가수 신해철이다. 진수는 신해철이 자신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해철을 좋아하고 그의 노래를 좋아한다. 신해철 노래를 들으면 음의 흐름이나 분위기도 좋지만 무엇보다 노래 가사가 마음에 와닿고 자신의 감정을 잘 대변해주는 것 같아서 노래 속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집으로 가는 길', '길 위에서'[4], '50년 후의 내 모습' 등의 노래는 가출생활 동안 느낄 수 있었던 감정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서 자주 들으며 공감하곤 했다. 특히 신해철 라이브 테이프는 콘서트의 열기와 현장감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데 진수는 마이크를 통해 터져나오는 드럼을 비롯한 악기의 반주소리와 신해철의 노래 소리를 듣고 있으면 모든 잡념과 고민은 사라지고 무한한 자유의 세계에 빠져드는 전율을 느끼곤 했다. 이렇게 신해철의 노래 또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어나가며 생활의 활력을 얻게 하는 상상적 세계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가출생활 동안 겪은 재미있는 경험들과

4) '길 위에서'(신해철 작사. 작곡) : 차가워지는 겨울바람 사이로 난 거리에 서 있었지. 크고 작은 길들이 만나는 곳 나의 길도 있으리라 여겼지. 생각에 잠겨 한참을 걸어가다 나의 눈에 비친 세상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아름답지 만은 않았었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는걸까.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나의 첫 깨어남이었지/끝없이 뻗은 길의 저 편을 보면 나를 감싸는 건 두려움. 혼자 걷기에는 너무나 멀어 언제나 누군가를 찾고 있지. 세상의 모든 것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고 삶의 끝 순간까지 숨가쁘게 사는 그런 삶은 싫어. (후렴)난 후회하지 않아. 아쉬움은 남겠지만. 아주 먼 훗날까지도 난 변하지 않아, 나의 길을 가려하던 처음 그 순간처럼. 자랑할 것은 없지만 부끄럽고 싶진 않은 나의 길 언제나 내곁에 있는 그대여 날 지켜봐주오. 〈이 노래는 진수가 신해철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다.〉

대중문화에의 탐닉을 통한 어려움의 상상적 해결은 현실 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가출'을 통해 홀로 세상에 부딪쳐 주체적으로 자신의 자유공간을 찾고자 한 진수의 바램은 진수 혼자 힘으로는 넘어뜨리기 힘든 현실의 벽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벽은 결국 현실 속에서 진수가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인 것이다. 가출생활 동안 일자리를 전전하며 놀고 싶을 때는 마음대로 그만두기도 하는 생활이 재미있고 편하긴 했지만 그것이 진수가 원하는 진정한 자유는 아니었던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도 친구들과 한 번 스트레스 풀면 금방 사라져 버리고 그날그날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조차 힘에 겨웠으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고 불안함만 가중되는 생활들이었다. 아무리 재미있는 노는 문화도 즐거움은 순간일 뿐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4) 직업훈련원생이 되어

1993년 겨울, YMCA 청소년 쉼터에 잠시 머무르고 있던 진수는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가출생활을 마감하고 한 곳에 정착해 보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1년 간의 직업훈련원 교육과정에 들어가기로 마음 먹는다. 직업훈련원에 들어가기로 한 진수의 결정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실제적인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함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전히 자유롭게 떠돌아 다니는 생활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소망하던 행복한 가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을 배워서 안정된 직장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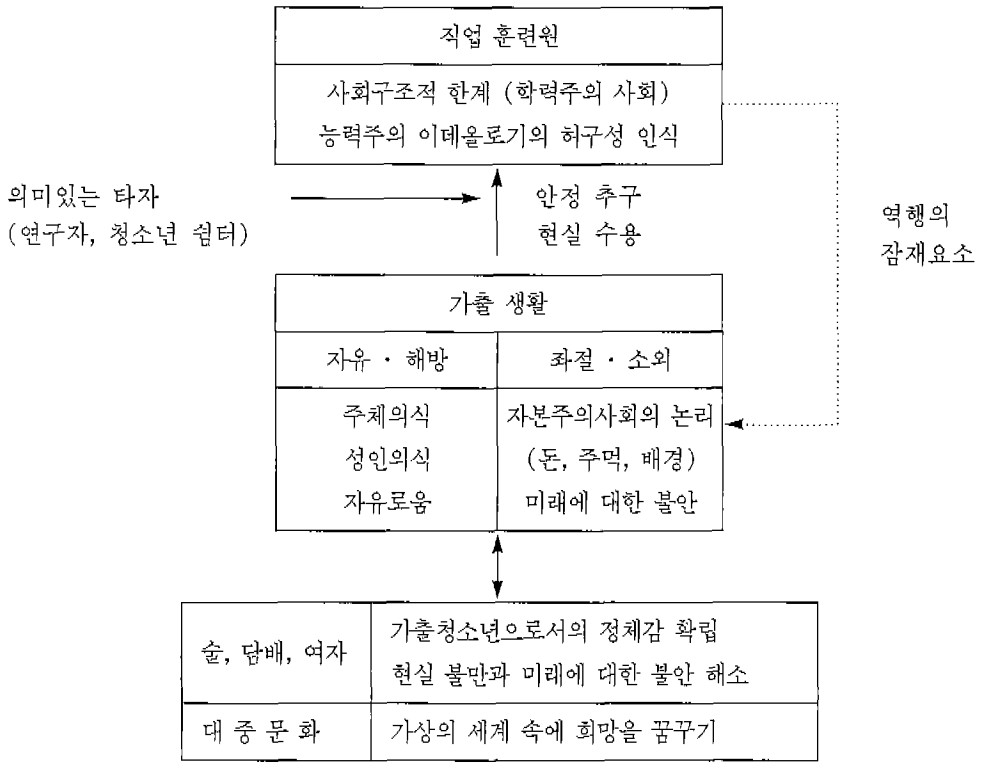
훈련원 입소를 결정하면서 진수는 집과 부모와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 가며 자유의 구속을 받아들이며 타협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아버지였지만 용돈이 필요할 때나 정 갈 곳이 없을 때는 집에 들를 수 밖에 없었고 거짓 웃음이라도 웃어야 했다. 또한 진수는 자신의 소원인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왜곡된 성격과 행동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훈련원 생활은 일단 시·공간적인 물리적 제약이 있다는 것만으로 진수가 적응하기 힘든 곳이었다. 한 곳에 두 달 이상 머무른 적이 거의 없었던 진수는 훈련원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면서 무척 답답해 했고 생활에 흥미를 잃어갔다. 다행히 그림그리기를 좋아하고 주위에서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훈련원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었지만 여전히 진수를 갈등 속에 빠뜨리는 요소들은 존재했다. 자기 비하에 가까운 자존감·자신감 부족은 진수가 힘들 때 낙담하게 하는 요인이 됐고 아버지처럼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한 훈련원 교사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훈련원을 뛰쳐 나가고 싶은 적도 있었다. 또다른 자본주의 교육의 장인 직업훈련원에서 이전에 제도교육의 장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학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도 했다. 새벽기상, 점호, 체조, 청소, 식사, 수업, 점호, 취침으로 이어지는 엄격한 규칙과 반복되는 생활 그리고 생활태도와 자세에 대한 까다로운 규율과 단속 등도 진수를 답답하게 하는 큰 원인이었다. 세상에 조금씩 적응해 보려고 했던 진수의 노력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때문에 다시 위기를 맞게 된다. 산업디자인 공부를 처음 하는 것으로는 어느 정도 재능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졸업 후에 취업이 그다지 수월하게 되는 것 같지 않았고 선생님이 산업디자인과는 전문대 정도는 나와야 제대로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진수는 점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 험난

한 길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것의 그저 '쪽팔리는' 일 정도였지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그 사람의 능력을 재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던 진수는 이제야 학력주의 사회의 벽을 절감하게 된다. 앞으로도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면 그 능력에 맞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진수의 생각은 많은 한계에 부딪치면서 좌절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진수는 또다시 재미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가출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진수는 자유롭게 놀면서 생활하는 것을 포기하고 직업훈련원에 들어가 세상을 수용해 보려는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미래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억압하는 구조적인 벽에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전문대를 졸업하지 않는 이상 작은 인쇄소에서 전문 기술이 필요없는 단순노동자의 길에 들어서야 할지도 모른다.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선택한 이 길이 진수에게 가능성과 꿈을 심어주기보다 오히려 더 큰 좌절과 불안의 요소를 안겨줄지도 모른다. 능력주의와 개인주의의 환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진수는 가정에서 느꼈던 '구속'의 이미지보다 더 거대한 현실 사회의 '구조적인 구속'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림 2〉는 진수의 가출생활을 유지시키는 힘과 가출생활에서 탈출하게 하는 힘 Forces들의 역동관계를 그림으로 그려 본 것이다.

〈그림 2〉 가출생활의 유지와 탈출의 역동관계



아직도 진수는 오토바이에 대한 간절한 꿈을 가지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며 신나게 질주하는 꿈은 비록 상상에서나마 여전히 진수를 자유롭게 해준다. 직업훈련원을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꾹 참고 견딘 것은 그나마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안정된 직장이라도 하나 얻어서 오토바이를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다. 진수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과정은 결국 자아를 찾고 자유를 찾고자 하는 노력의 연속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 노력에 제한과 좌절을 주는 요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후에 진수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가에 따라 얼마만큼 보다 완성된 형태의 자아와 자유를 찾게 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3. 가출의 의미

지금까지 진수의 18년 동안의 생애를 '가출'이라는 큰 사건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삶을 꿰뚫고 있는 일관된 기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흐름속에서 진수가 경험한 삶의 각 장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진수의 삶을 유지 또는 변형시키는 주된 기제는 '자기정체성' 확인 여부이다. 진수는 자신이 경험한 삶의 영역들 속에서 때로는 자기정체성 확인으로 해방과 자유를 느끼고, 때로는 자기정체성 상실로 좌절과 소외를 경험하며, 끊임없이 자아를 찾고 해방과 자유의 공간을 찾는 노력, 즉 보다 확고한 자기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온 것이다. 진수의 '가출' 또한 이러한 전체 맥락에서 자기정체성을 찾는 과정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수의 가출은 그 결과와 현상적인 모습이 어떠하건 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억압적 상황에서 탈출하여 새롭고 주체적인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선택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있는 방식이며 보다 해방된 삶을 찾기 위해 선택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제해결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진수의 지금까지의 삶을 조망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출은 단순히 가정 만의 문제로 인식하거나 한 시기의 문제로 규정지어서는 근본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전체 삶의 과정에서 어느 장에서든 한 개인의 주체성을 억압하는 요소가 있을 때는 항상 갈등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것이 폭발할 수 밖에 없다. 가정, 학교, 사회, 직업훈련원 어느 장이든 그러한 요소는 내재되어 있으며 그러기에 모든 장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곳이며 그 속에서 한 주체가 억압을 느낀다면 끊임없이 해방의 장을 지향하며 자신의 주체성을 찾아 어떠한 형태로든 그 노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 가출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는 가출청소년이 경험하는 생활세계의 각 영역들이 어떠한 모순과 긴장, 갈등 요소를 가지고 서로 접합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특정한 시기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작동하는지 그 역동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가출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당시 자신이 직면한 극복하기 어려운 억압적 환경이 바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탈출한 것뿐인데, 일반적으로 청소년 가출을 문제시하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가 필요한 불안정한 미성년으로만 보는 단선적인 시각 때문이기도 하다. 어떤 환경이 억압적이고 그로부터 탈출하고자 한다면 가정 뿐만이 아니라 직업훈련원이나 진수가 앞으로 직면할 어떠한 장도 충분히 '또 다른 가출의 장'이 될 수 있다. 진수가 현재 직업훈련원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 곳에서 세상의 논리를 수용하지

〈표 1〉 자기정체성과 영역별 문화요소

자기정체성 (self-identity)	가 정	학 교	사회(가출생활)	직업훈련원
확 인		욕구분출:까불기 능력 확인: 공부와 성적	주체의식·성인의식 자유로움 가상의 세계속의 정체감 : 노는문화 대중문화	능력 확인 : 그림그리기
좌 절	탄생의 불확실 애정 결핍:새엄마의 구박 아버지의 학대와 신경증 부모의 싸움	왜곡된 성격 표출: 싸움질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의 벽: 돈, 주먹, 배경, 미래에 대한 불안	사회구조적 벽: 학력주의 사회 미래에 대한 불안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다시 탈출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진수가 자기정체성을 찾는 노력과 각 삶의 영역과의 관계를 도표를 이용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결국 진수에게 가정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구속의 장이었고 진수는 주체적인 자아를 찾아 그 참을 수 없는 환경에서 뛰쳐나옴으로써 가출생활을 시작한다. 가출생활은 곧 사회생활이었고 그것은 개인과 사회가 부딪치며 끊임없이 해방의 의미와 좌절의 의미를 혼재하여 겪게 하는 곳이다. 가출로 시작된 세계는 결코 자유로움과 재미만 주는 곳이 아니었고 불안과 긴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장으로 그 속에서 진수는 불안을 극복하고 긴장을 해소하는 기제로 쾌락을 활용한다. 진수의 노는 문화는 일시적인 것으로, 진수가 그 속에 빠져서 극복하기 힘든 상태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스스로 확보하여 적응기제로 사용함으로써 유연성을 발휘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진수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현실의 벽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한다. 돈, 주먹, 그리고 순간의 즐거움을 찾는 생활과 세상이 인정하는 보다 나은 삶과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진수는 자신의 자유를 잠깐 담보 맡기더라도 세상을 수용해 보려는 노력으로 직업훈련원을 선택한다. 자신의 정체감과 자유를 찾으려는 진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직업훈련원이라는 장에서도 사회구조적인 벽이라는 또다른 형태의 억압과 제한을 받는다. 자아를 찾고 자신에게 충실하고자 해방의 장을 찾는 진수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Ⅲ. 나오는 말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의 삶과 문화에 대한 연구로 한 가출청소년과의 심층적 면접과 관찰을 통해 그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가출의 배경요인과 가출생활의 경험, 그리고 가출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가출청소년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진수의 가출은 더 이상 참기 힘든 갈등적 상황에서 탈출하여 주체적인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선택한 나름대로의 삶의 몸짓이자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으며, 문제를 회피하기 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려움에 뛰어들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보고자 한 능동적인 문제해결 방식이었다. 가출청소년인 진수는 문제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충실하고자 하고 정체성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가진 아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출청소년을 삶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면 그들을 위한 제반 정책도 보다 새롭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내올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귀가시키려 하기 보다는 집 밖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조성해 주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한 예이다.[5] 이러한 시각으로 이용교(1993)는 기존 논의의 주류는 가출청소년을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찍어 가능한 한 가정으로 빨리 귀가시켜 보호자가 선도하는 것이 상책으로 봄으로써 그들의 요구는 들어줄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실제로 욕구에 따른 서비스가 아닌 문제에 따른 대책만으로는 청소년 가출이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한다. 즉, 가출청소년이 무엇을 바라고 그들이 현재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알아야 하며, 불가피하다면 집밖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비스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출청소년에 대해 치료 위주의 고정적인 관념으로 그들을 무작정 통제하거나 보호하려는 정책은 그들을 더욱 옭아매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볼 때 그러한 지적은 중요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앞으로 진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느냐는 우리 사회가 가출청소년을 문제아로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인격적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의 삶을 격려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해방적 삶을 찾는 가출청소년의 주체적인 삶의 몸짓이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 각 장에서 총체적인 사전,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5) 실제로 진수가 가출생활 중에 이용했던 'YMCA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이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으며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청소년을 통제와 간섭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을 사업의 전제로 하고 있는데, 진수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기관은 가출청소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의미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쉼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원 논문을 참조 바람.

〈참고자료 1〉 가출청소년이 난장까는 장소

난장까는 장 소	특 징	이용 계절	이용할 때 주의할점	잠잘곳 (실내·실외)
숲·항강 고수부지	노는아이들이 무리지어 자주 찾는 곳 날을 새며 놀수 있어서 재미있다	여 름	다른 아이들과 시비 붙지않게 조심, 한 여름이어야 가능하다	실 외
교회·성당	십자가 불빛으로 찾기 쉽다 관리(통제)가 엄격하다	봄·가을 겨울	들키지 않도록 조심	실 내
놀이터 공 원	잠잘 곳으로 벤치나 모래바닥이 준비되어 있다.	여 름	경찰 순찰차에 들키지 않도록 조심	실 외
건물이나 아파트의 계단·옥상	사람들이 오기전,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 가장 찾기 쉽다	봄·가을 겨울	관리인이 없는 곳을 잘 찾아야 한다.	실 외 (바람 막이 가능)
병 원 응급실	항상 열려있다 시끄럽다(부랑자들이 많이 온다)	봄·가을 겨울	의자에 앉아서 자야한다 (불편하다)	실 내
서울역 근 처	부랑자들이 모여 있는 곳	봄·여름	거지들과 함께 있어 지저분하고 위험하다	실 외

〈참고자료 2〉 진수가 경험한 직업

직 업	근무시간	월 급	장 점	단 점	구하는 방 법	선호도 (상·중·하)
신 문 보급소	새벽3시~ 아침6시	10-15만원	낮시간 이용가능	새벽기상, 숙소환경 열악, 월급이 적다	직접 찾아감	하
중국집	오전10시~ 오후9시	35-40만원	취직이 쉽다 오토바이를 탈 수 있다.	쪽팔린다, 숙소환경 열악 (지저분하다)	직접 찾아감	중
룸쌀롱	오후6시~ 새벽3시	100% 팁제	월급이 많다, 일이 쉽다, 놀 수 있다, 깨끗하다	낮과 밤이 바뀐 생활, 써빙이 적성에 안맞다 잘못하면 나쁜길로 빠진다	아는사람 소개	상
노래방	낮12시~ 저녁12시	20만원	놀 수 있다(노래)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다	지루하다(노래방에 오는 친구들만 만날수 있다)	아는사람 소개	중
레스토랑	오전10시~ 저녁12시	30-35만원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다. 깨끗하다	단순반복적인 일 써빙이 적성에 안맞다	아는사람 소개	중
주유소	하루 8시간 근무(주·야 중에서 선택)	30-35만원	근무시간이 일정 자유시간이 많다	지루하고 답답하다	직접 찾아감	하
노가다	오전7시~ 오후6시	70-80만원	월급이 많은 편이다	육체적으로 힘들다	직접 찾아감	상

〈참고자료 3〉 가출청소년이 쓰는 은어

1. 뽀리까다 : 훔치다
2. 깽값 : 사람을 때려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치료비 등 그 대가로 지불하는 돈.
   진수는 "괜히 시비걸어서 싸우고 깽값이나 받아낼까?"하는 농담을 하곤 한다.
3. 뒷다마 깐다 :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
4. 땡땡이 : 주로 놀기 위해서 학교 수업을 빼먹는 일. '땡땡이 깐다'고 표현한다.
5. 후달리다 : 겁나다, 떨리다, 무섭다.
6. 죽돌이 : 어느 한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 "--에 죽치고 앉아 있다."라는 표현에서 '죽'과 비슷한 뜻.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죽 때린다'는 표현을 쓴다고 한다. 그런 사람을 여자인 경우는 '죽순이', 남자인 경우는 '죽돌이'라고 부른다.
7. 띵줄 : 오락실에서 동전을 집어넣는 대신 사용함으로써 오락실 기계를 무료로 작동시킬 수 있는 도구. 예전에는 빳빳한 노끈 같은것으로 튕기면 작동이 됐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기계가 자주 고장나고 수입이 안생기니까 오락실 주인들이 요즘에는 오락기계를 첨단으로 바꿔서, 전기라이터 부품 중에 전기 불꽃이 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8. 하이 뜨다 : 도망간다. 꼭 도망갈 때 만이 아니라 현재의 자리를 벗어난다는 뜻으로도 많이 쓴다고 한다. 같은 의미로 '하이방 뜬다' 또는 '하이방 깐다'는 말도 쓴다.
9. 난장까다 : 길거리나 건물 등에서 잠을 자는 것을 말한다. '날을 새며 논다'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잘 곳이 없는 가출청소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10. 갈구다 : 주로 눈싸움으로 서로 째려보는 것을 말한다. 신경전과 비슷한 것으로 갈구다가 지면 지는 쪽이 맞게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꼭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상태로 째려보는 것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힐끗힐끗 자꾸 쳐다보는 경우 등에도 '갈군다'는 표현을 쓴다.
11. 아다 : 성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일컫는 은어. 그 외에 성(性)에 대한 여러가지 은어들이 있다. '아다'는 성경험은 없지만 이성과 손을 잡아 보거나 키스를 해 본 사람을 말하고 그런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은 '쌩아다'라고 한다. 성경험을 '콩깐다'라고 표현하는데 콩 깐 적이 있는 사람은 '후다'라고 부르며, 너무 많이 콩을 깐 사람은 '걸레' 또는 '콩꾼'이라고 부른다. 아무한테나 찝적대는 애들을 '개걸레, 개후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성과의 관계를 뜻하는 '콩깐다'는 말을 줄여서 '코'라고 표현 하는데 '1코'가 한 사람하고 10번 관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12. 깔다구 : 진정으로 사귀지 않고 재미로 사귀는 이성친구.
13. '짱'이다 : 첫째다, 제일이다.
14. 야리다 : 담배피우다. 어른들 앞에서 담배피우러 가자고 말할 때 "야리러 가자, 야리자, 또는 쌔리러 가자."고 표현한다. 여기에서 "쌔리러 가자"는 말은 사람을 까러(때리러)가자는 뜻으로도 쓰인다.
15. 쌩까다 : 무시하다. 비슷한 뜻으로 '씹다'라는 표현이 있다. 서로 모른척 한다는 뜻으로 '안면깐다'라는 말도 있다.
16. --때리다 : 어떤 일을 '하다'라는 말 대신 사용하는 말. 예를 들어 '전화한다'라는 말을 '진화 때린다'라고 하거나 '밥 먹는다'라는 말을 '밥 때린다'라고 표현한다. '죽때린다'에서도 사용된다.

비슷하게 '째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17. 알짤없다 : 안먹혀든다. 어림도 없다.
18. 짤이다 : 끝이다. 예를 들어 '너와의 관계는 끝이다'라는 말을 '너랑은 짤이야.'라고 표현한다.
19. 칼로 담궈버린다 : 칼로 찔러버린다.
20. 뽀록나다 : 들키다. 비슷한 말로 '뽕짝나다'라는 표현이 있다.
21. 짱보다, 짱박다 : '짱박다'는 한 곳에 몰래 숨어 있거나 가만히 있는 것을 주로 말하며 '짱보다'는 '망보다'의 뜻으로 자주 쓰인다.
22. 엄창 : 친구들에게 자신의 말이 사실(진실)이라는 맹세의 뜻으로 사용하는 말로 "이 말이 거짓말이면 우리 엄마는 창녀다"라는 말을 줄인 것이다. 이 말을 할 때는 독특한 손동작을 함께 하는데, 한 손을 주먹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만 펴고 엄지손가락을 이마의 한 가운데에 갖다 대면서 말을 해야한다. 비슷한 뜻으로 '아자방' 또는 '아불당'이 있다.
23. 식후땡 : 밥을 먹고 난 직후 담배를 피우는 것.
24. ---0나0나0나 : 어른들이나 자신들의 대화를 숨겨야하는 사람들 앞에서 각 음절 사이에 '나' 자를 넣고 받침을 모두 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말을 아주 빠른 속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도 잘 알아듣기 힘들다. 예를 "야리있냐?(담배있나)"라고 물을 때 "야나리나이냐나나?"라고 말한다.
25. 빽차 : 경찰 순찰차
26. 짜바리 : 경찰, 비슷한 말로 '짭시'라고도 한다.
27. 얍삽하다 : 간교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을 비꼬는 분위기가 담긴 말로 얄밉게 굴 때 쓰는 말. 비슷하게 '얍실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28. 담배방 : 담배불로 자기 몸을 지져서 흉터를 낸 것. 괴롭고 힘이들 때 자기자신이 일부러 흉터를 낼 때가 있다.
29. 맞장튼다 : 싸운다. 대든다.
30. 쏭간다 : 아주 기분이 좋고 만족스러운 상태에 쓰는 감탄사. '뽕간다'라고도 한다.
31. 손동작을 통한 대화 : 남녀 사이에 악수한 손모양에서 상대방의 손바닥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긁으면 '같이 자고 싶다'라는 표시이고, 이에 대해서 상대편이 그대로 악수를 계속하면 승낙한 것이고 손을 뿌리치면 거부한 것이다.

참 고 문 헌[6)]

박성수. 1991.「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서울YMCA청소년 상담실. 1991.「가출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 YMCA청소년 자료집 91-10

_____. 1994.「서울 YMCA청소년 상담교실 자료집」

연진영. 1992.「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이용교. 1993.「한국청소년 복지의 현실과 대안」 은평천사원출판부

전병재. 1991.「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간의 상관성 연구－낙인과정 설명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용환. 1993.「청소년 연구의 문화 인류학적 접근」,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연구 제4권 제3호

피터 레오나드 지음,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옮김. 1990.「자본주의와 인간발달－인간의 인성에 대한 유물론적 접근」, 한울아카데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2. 청소년문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공부압력을 중심으로」

_____. 1993a.「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_____. 1993b.「친구와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6)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문헌만을 제시하였다.